송광사, 야생차 체험단지 조성

생산 불교로 사찰-주민-관광객 이익 도모

순천 서부지역 문화관광 중심허브 역할 기대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이 송광사 인근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차를 살펴보고 있다.

'생산 불교'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신행형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야생차를 활용한 포교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전통 불교 야생차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안을 확정하고 2월 3일 순청시청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광사와 전라남도, 순천시 관계자들이 모여 송광사 권역의 야생차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영조 스님은 "불교 전통과 자연의 특성을 살린 야생차 체험단지는 특화된 관광,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송광사는 물론 순천시, 관광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사업이다"고 제안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허갑중 박사도 "송광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연간 30만 명으로 야생차 체험단지는 고인돌공원-낙안읍성으로 이어지는 순천 서부지역 문화관광축의 중심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사업안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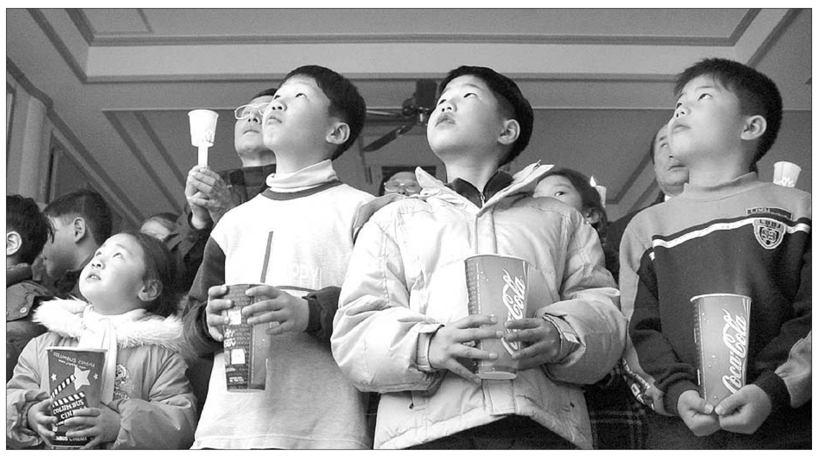
송광사가 마련한 야생차 체험단지는 조계산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보호 관리하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야생차 재배농원 조성 △제다공장 △불교전통다도 체험관 △세계야생차갤러리 △사찰음식점 △야생차 시음장 설립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현재 송광사는 해마다 200여통의 야생차를 생산해 강원과 선원 등 사중스님들이 음용하고 있다. 또한 송광사 인근 230여 농가가 300만평의 야생차 농원를 관리하며 자체 상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특화 가능한 사업으로 관광 경쟁력이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법규를 검토해 사업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비 2억 7천여만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영조 스님은 "더 이상 앉아서 포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환경을 적극 활용해 '찾아오는 불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한마음선원 본·지원 새해맞이 촛불재 봉행

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전국 15개 지원은 2월 2일부터 일제히 새해맞이 촛불재를 봉행했다.

촛불재는 새해를 맞아 산자나 죽은 자 모두 마음을 밝히고 복을 지으며 살자는 의미의 행사로 촛불을 들고 도랑을 돌며 자성본래의 밝음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사진은 광주지원이 2월 4일 열린 촛불재 회향식에서 초 · 중 · 고 · 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모습.

이준엽 기자

충북 불자예술인협회 첫 법회 봉행 활동 시작

지난해 12월 1일 창립된 충북불자예술인협회(회장 지순애)가 2월 8일 청주 관음사에서 첫 정기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불자 예술인 50여명이 "신행과 포교에 앞장 선다"는 원력을 모아 발족한 예술인협회는 가수, 연주, 농악, 민요 등 9개 분과를 구성하고 매월 한 차례씩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지순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큰 원력으로 모인 불자 예술인 답게 교도소 군부대 경로시설 등에 대한 위문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청주 불교단체 대표 화합다짐 신년 교례회

청주지역 불교단체 대표들이 2월 7일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신년 교례회를 갖고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더욱 화합할 것을 다짐했다. 청주불교단체협의회(회장 민병국)가 주최하고 청주불교금강회가 주관한 이날 교례회에는 지역 불교계 스님들과 이원종 충북지사, 오제세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한편 교례회에 앞서 청주신도연합회는 김현배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빛고을, 으뜸가는 불교고을로"

광주전남 신도회, 신행단체장 초청 간담회 열어

"호남을 불교 불모지라 하지만 토양은 건실하다. 단지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자주 만나자, 신명나게 불교운동을 펼치자."

지난 2월 9일, 광주 전남 불교신도회(회장 이상진) 초청으로 열린 '불교신행단체 및 교계지도자 간담회'에서 모처럼 재가불자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초청으로 열린 '불교신행단체 및 교계지도자 간담회' 모습.

신도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도제 스님(원각사 주지)과 전상선 화엄사 신도회장, 경철 광주불교대학 석좌교수, 해월성 여성불자회장 등 신행단체장,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잠자는 신도회'임을 인정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광주전남교사불자회장은 "신행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의가 크다"며 "빛고을을 으뜸가는 불교고을로 만들기 위해 먼저 단결, 화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철 교수는 "이교도들이 사찰의 문화해설사로 들어와 활동하면서 은근히 불교를 비하하고 있다음"며 "신도회가 앞장서 불교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을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상진 회장은 "올해를 광주 전남 신도회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종파를 초월해 수행과 포교,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해 '움직이는 신도회'가 되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신도회 운영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고 "올해 안에 신도회를 사단법인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승·속 함께 공부하는 도량

광주 학림사, 준공 마치고 천불 봉안불사

얼마전, 달동네로 불리던 광주 동구 학산 기슭에 풍채 당당한 사찰이 자태를 드러냈다. 중창불사를 펼치고 있는 학림사(주지 원명 · 사진)다.

산동네 끄트머리에 자리한 학림사는 창건 이래 40여년간 서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다. 오래전부터 도량이 협소해 불사를 했어야 했지만 마을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법당은 작고 퇴락했지만 마을사람들이 언제든 마음 편하게 찾아오도록 했던 것이다.

지난해부터 취락 개선사업이 전개되면서 달동네에 대형 아파트가 건립중이다. 학림사도 새로운 단장을 시작했다.

"승속이 함께 공부하는 도량을 발원하며 불사에 앞서 백일기도를 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로 공사하면서 손가락하나 다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장을 맡아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는 주지 원명 스님은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공부하는 도량이 되도록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학림사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도심사찰로 연건평 170평 2층 건물이다. 1층은 교육관, 공양간, 요사가 자리한 현대식 건물이고, 2층은 법당으로 3포 팔작지붕의 전통가람이다.

법당에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3층 닫집과 천불전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동천불불사를 펼치고 있다. 교육관은 15년 전 창립한 '전통불교 영산회' 전용 교육장으로 활용해 스님들의 불교의식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 건물은 법당에서 각 사무실로 이동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다.

아직도 벽화, 단청, 천불봉안 등의 불사를 진행중인 원명 스님은 "진정한 불사는 건물이 아니라 인재불사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불사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불교교육에 힘써 "생활 속에 불교가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님은 재일기도에 머물던 법회를 일요법회로 정례화하고 학생회, 청년회 법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062)222-4133

이준엽 기자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초발심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수행법의 결정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역출간이며 한국 불교에 기념비적인 경론!!

달라이 라마가 2005년 12월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서 추천했던 바로 그 책!!

승속을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환희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

저자는 이 책에서 법과 영적 스승에 귀의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죽음, 인과법칙과 수많은 고통을 뛰어 넘어 사랑과 열정을 바탕에 둔 이타의 보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 진리인 자기도 없고 남도 없는 공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결국 모든 인간에게 소중하게 부여된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자유의 길을 제시해준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중적인 수행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며 좀 더 높은 차원의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수행단계도 소개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진리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수행은 인위적으로 총카파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천 년 동안 붓다와 그 제자들이 스스로 실천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수행자들은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때 압도당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 그럼으로써 수백 번, 수천 번 엎드려 절을 하며 자기들의 영혼을 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제 당신도 세계 불교를 이끌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교보문고 불교부분 1위

총카파 지음 / 청전 옮김
신국판 변형, 양장본 / 1008쪽 / 값 43,000원

지영사 Tel. 02) 747-6333

산중일지

늦깍이 수행자의 25년간의 진솔한 수행담!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책!

저자는 우리 불교사의 중요한 시기에 수행했던 원로였다.
이 책은 수행자의 사표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책이며
당대 선지식인들의 면모를 후대인들에 의해
윤색되지 않은 생생한 일화로 만날 수 있다.
'활로'를 모색해가는 한 수좌의 평범한 일상과
철저하게 은둔속에 갇힌 수행자의 길과 그 길 속에서
수없이 만나는 의문의 물음들에 대해
너무도 진솔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현칙 지음 / 신국판 변형 / 값 10,000원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옮기고 해설한

부모은중경

부모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자식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잊고 사는 부모의 은혜가
왜 소중한지, 왜 다 갚을 수 없는지
가슴 깊이 알게 해주는 책이다.

신국판 변형, 양장본 / 값 8,000원